

LEGAL UPDATE

ESG센터

Jan. 2023

Focus sector: 건설 산업

- 설계부터 시공 및 운영까지 건설업 전 단계에 ESG경영이 고려되는 추이 -

화우 ESG 센터에서는 매월 3주에 걸쳐 산업별 ESG 현황을 살펴봅니다. 2023년 1월의 Focus sector는 건설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건설 과정에서의 생태계 영향,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오염 부하 발생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

Standard



- SASB: 프로젝트 개발 과정의 환경오염 저감과 안전보건 관리가 주요 이슈

02

Initiative



- 넷제로 빌드 환경위원회(Net Zero Build Environment Council): 건설 분야의 탈탄소화 추진

03

Policy



- 환경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04

Trend



- 국토부-건설사,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체결
- 환경부-건설업계,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1. ESG 스탠다드

• SASB 기준 주요 이슈

건설 산업의 주요 이슈는 프로젝트 개발의 환경 영향,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건물/인프라의 영향, 비즈니스 기후변화 영향, 비즈니스 윤리가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는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 전에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공사 시에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재 조달 시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설계 시에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건설 시 구조적인 안전 뿐 아니라 잠재적인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잠재적인 설계 문제를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설 현장에는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므로 사망 및 부상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중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SG 이니셔티브

• [넷제로 빌드 환경위원회\(Net Zero Build Environment Council\)](#)

맥킨지&컴퍼니는 건설 부문에서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선두 기업으로 구성된 '넷제로 빌드 환경위원회(Net Zero Build Environment Council)' 연합을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건축 환경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건물 설계, 건축, 운영 및 해체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비 전기화부터 저탄소 재료 대체까지 건설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넷제로 경로를 연구 및 홍보하며, 탈탄소화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유도, 기후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부문 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 하에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3. 국내 정책·규제 동향

(1) [환경부,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환경부는 2022.12.27,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제시하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이번 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2016~2025년)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작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조기에 수립한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5대 핵심 전략과 총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하여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중점 추진 과제 중>

중점 추진 과제	세부 내용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등 친환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노후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23년~), 신규 무공해장비지원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제 도입(24년~), 무공해 건설현장운영(25년~), 실내 소형 내연기관 지게차 신규등록 제한(27년)기타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취약계층 전동화 개조 등) 지원확대(23년~), 구매 보조 대상 확대(25년~)와 병행하여 관급공사장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확대 등 추진무공해 건설기계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설현장 맞춤형충전소 모델 및 초고속 충전시설 개발 지원(24년~), 무공해건설현장 중심 충전시설 설치 지원(28년~) 등 추진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설공사, 야적 등 사업장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정도관리강화 등을 통한 배출량 산정의 신뢰도 제고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개편 및 조치기준 강화, 조치유형별(밀폐, 억제제 사용 등) 저감 효율 향상 추진현장 맞춤형, 주민참여형 지도점검 실시 및 추가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9.\] \[환경부령 제1005호, 2022. 11. 29., 일부개정\]](#)

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된 건설폐기물이 위탁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어 해당 시설의 운영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는 한편,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의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통과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 기업 동향

(1) 국토부-건설사,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체결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대우건설, 디엘이앤씨(주)와 국토부는 2022.11.23, 2023년도 온실가스 18,729tCO₂-eq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사들이 2022년 감축목표인 15,005tCO₂-eq 감축을 달성하여 작년 대비 25%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표관리 업체 외에도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인 삼성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라, HDC현대산업개발이 함께 참여하여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2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주요 건설사들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과 같은 친환경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환경부-건설업계,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22.11.25,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배출·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금호건설(주), 두산건설(주), (주)대우건설, 디엘이앤씨(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쌍용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GS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주)H디앤아이한라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조준오

변호사

T. (+82) 2 6003 7080

E. jojo@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